⊙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즐함울
〔준비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47호 / 발행일 : 2003년 6월 29일

'주님의교회 창립15주년!'

이재철 목사 주일설교, 김도묵 · 홍근용 장로퇴임식 가져

오늘은 우리 교회가 1988년 6월 26일 용산구 한남동 여성청년교육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후 15주년이 되는 주일이다. 지난 목요일(26일)로 15주년을 맞았다. 15주년이 되던 26일 축하음악회를 가졌으며(관련기사 참조), 창립주일을 맞아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문동학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고 초대담임인 이재철 목사가 1, 2, 3부 설교를 해주어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될 것이다. 또한 창립주일을 축하하며 이혜정 집사, 한규원 선생, 정록기 교수가 각각 1, 2, 3부예배 시 축가를 부른다.

특별히 3부예배는 1990년 6월 24일에서 2003년 6월 29일까지 시무한 김도묵, 홍근용 장로의 퇴임식이 있다. 담임목사 10년 임기와 아울러 1년 안식년 포함 13년간 시무하기로 된 장로 임기에 따라 퇴임하는 첫 번째 퇴임식이어서 한국교회에 하나의 모델로 남게 될 전망이다. 교회에서는 예배 후 생일떡을 나누어주며, 3부예배 후에는 1층 로비에서 케익커팅식과 함께 다과회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주님의교회가 걸어온 발자취이다.

1988년 6월 26일/용산구 한남동 여성청년교육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창립예배를 드리다.
1988년 11월/강남구 논현동 강남YMCA 건물로 예배장소를 이전하다.
1990년 6월 24일/1회 장로장립식을 갖고 이재원장로는 취임을, 김도묵, 홍근용장로는 안수받다.
1996년 4월 28일/정신여중고 강당으로 예배장소를 이전하다.
1998년 6월 28일/이재철 목사 퇴임예배 드리다(10년 임기 후 퇴임).
1998년 11월 1일/교회 사무실 정신학교 신축강당으로 이전하다.
1998년 12월 6일/정신학교 강당 건축 기부체납(1차)하다.
1999년 5월 16일/2대 임영수 목사 위임예배 드리다.
2002년 6월 30일/임영수 목사 퇴임하다.
2003년 1월 18일/정신학교에 강당 건축 기부체납(2차)하다.
2003년 6월 8일/3대 문동학 목사 위임예배 드리다.

교회창립15주년축하음악회

전체 5부로 구성된 찬양의 향연

음악위원회(위원장 : 윤좌원 장로)는 지난 6월 25일(수) 오후 8시부터 대예배실에서 전교인 대상으로 교회창립 15주년 축하음악회를 호산나찬양대(대장 : 신정웅 집사)주관으로 드렸다. 이를 위해 주일 1부예배 찬양을 맡고 있는 호산나찬양대는 박영주 집사의 지휘로 지난 4월말부터 준비를 시작하였고, 6월부터는 수요일과 토요일에도 모여 막바지 연습으로 땀을 흘려야 했다.

1부는 호산나찬양대의 찬송가 편곡 '내 주되신 주를 참사랑하고'를 시작으로 3곡을 찬양하였고, 2부는 본 교회에 출석하는 소프라노 이영해 교수(한양대)가 찬송가 편곡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를 불렀으며, 3부는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지휘 : 박영주)이 복음성가 '노래할 이유있네'와 만화영화주제곡 '미키마우스의 행진'을 불러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4부는 바리톤 민경원 교수(서경대)의 독창 '사랑은 실패없도다'는 축하음악회의 색다른 기쁨을 선사하였고, 이어서 5부는 호산나찬양대의 찬양으로 4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다.

2003년도 중직자 피택을 위한 선거 실시

[우리 교회에서는 2003년도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피택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선거대상 및 범위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2. 선거일시
▶1차투표 : 7월 13일(주일)
8:30~13:30
*공동의회 1부예배 종료 후
▶2차투표 : 7월 20일(주일)
8:30~13:30
*2차투표는 1차투표에서 피택되지 않은 수 만큼 재 선출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1차투표에서 다수 득표한 후보자 순으로 장로는 부족한 수 만큼 권사와 안수집사는 부족한 수의 2배수를 대상으로 다시 선출한다.)

3. 투표장소 : 정신여고 본관 1층

4. 당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명단
• 장로 후보(20명) -가나다순-
강윤식 김경빈 김성구 김성배
김완중 김우림 김재현 김창안
류달현 박호길 엄주청 유중화
이성우A 이영자A 이지화 장일형
최상용 최상인 한득현 한정웅
• 안수집사 후보(42명)
강진식 김광호A 김구중 김기성
김동근A 김병한 김용일 김익수
김홍용 나영일 동현수 문광순
문완홍 박대길 박동수B 박재준
박정우A 박종규 박형기 서준규
서치영 성하홍 송국환 신정웅
심동욱 유기형 이단열 이동희A
이상윤A 이용수 이원철 이종복
이진원 이호윤 임익수 임창남
장현길 정성기 조영률 지유철
최종만 최종명
• 권사 후보(44명)
강경원 고선옥 고유자 고정순
권성희 김경미A 김경수 김금숙
김명애A 김복희A 김선례 김설희
김순희A 김현주A 박귀희 박서연A
박영남 박현숙B 방혜준 백설희
손혜선 신영숙 유귀향 유마노
유은숙 윤 숙 은영희 이경자B
이미화A 이승숙 이응분 이종은
이춘일 이혜란A 이희순A 조성희A
지영민 최귀선 최영순B 최재경A
최정윤A 최진옥 한나숙 한영미

5. 당선자 확정
• 장로 : 투표자의 3/2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

- 2003. 6. 29. 선거관리위원회 -

【알림】 후보자 기도모임
▶1차모임
일시 : 7월 3일(목) 20:00~21:00
장소 : 소예배실
▶2차모임
일시 : 7월 10일(목) 20:00~21:00
장소 : 소예배실
※후보자 전원과 당회원 참석 요망

문동학 담임목사께 묻는다

주님의교회 '사도적 교회'

문동학 담임목사는 올해 1월에 부임하여 지난 6월 8일 위임예배를 드리므로 주님의교회 제3대 목사가 되었다. 함즐함울 편집부에서는 교회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담임목사의 앞으로의 비전과 목회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기획, 2주 전 미리 질문지를 작성하여 담임목사께 드리고, 6월 11일 수요예배 후 목양실에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목양실은 다양한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힌 서가와 조촐한 분위기의 책상, 응접세트 등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마침 핀 난초꽃의 그윽한 향기가 목사님의 환한 미소와 어울려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대담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자들 :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양실 탐방이 영광입니다.

문목사 : 아, 어서들 오십시오.

정집사 : 목사님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목사님 오신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과의 만남은 주님의교회 대대로의 홍복입니다. 무지개 축제, 위임식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끝났습니다. 이제 그 무지개 빛 스펙트럼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실 지 기대가 큽니다.

문목사 :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

〈2면에 계속〉

지만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다양한 성격과 연령, 직종 등을 뛰어넘어 상호 이해와 수용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를 우리 모두 꿈꾸지 않습니까? 서로 잘 어울리기 위한 수단으로는 놀이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이해의 소중함을 느끼며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기획, 진행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신앙교육이 시급한 과제가 된 한국교회 현실에서 교회학교 학생, 청년들 양육을 위해 우선 청년 수요 중심의 축제 모습을 지향했고, 이런 한마당 어울림을 축제 문화로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정집사 : 우리 교인 모두 주님의교회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과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남다르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문목사 : 누구보다도 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교회 정체성과 교우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안고 부임했습니다. 주님의교회를 창립, 터를 닦는 데 노력하신 이재철 목사님과 초창기 교우들의 창립정신, 그리고 교우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지경을 넓혀 가신 임영수 목사님의 영성훈련의 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새 일을 은혜로 알아 감사히 수행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 교우들의 끊임없는 간곡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 위해 공동체 훈련을 제게 주신 시간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앞의 두 분들처럼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집사 : 지난 6월 8일로 주님의교회 위임목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 뜻에 합한 목양을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의 두 분 목사님들과 관계와 교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목사 :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는 교회, 교인들 양육을 위한 공동체 훈련 등에 힘쓰겠습니다. 앞서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주로 창세기,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의 초석을 다져 주셨고, 임영수 목사님께서는 치유목회, 영성훈련을 통해 믿음의 자질을 성숙시켜 주셨기에 이제 저는 사도행전 강해설교를 하려 합니다. 평이한 표현을 통해 다양한 성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설교를 전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도전, 계시, 터치가 느껴지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연초에 '출발 2003! 사역자 교육'에서 제시한 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는 교회',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번식하는 교회' 등의 비전을 걸고 사도행전 29장의 새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교인들 양육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목사님과는 늘 교통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 뵈었고, 임영수 목사님도 자주 안부를 듣고 전화 드리는 편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려면 이 분들과의 교통은 필연적입니다. 29일 창립예배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는 것도 우리 교회의 그런 뜻입니다.

정집사 : 연초 1월 5일에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주님의교회 교우들의 삶 속에 사도행전 29장이 전개되어 갈 수 있는 말씀이 생수처럼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목사 : 어깨가 매우 무거워지는데요.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기도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주 기도원에 가서 말씀의 자양분을 채우겠습니다.

정집사 : 지난 1월 19일 설교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에서 진정한 지도력이란 섬기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셨는데 가장으로서 목사님께서는 가정에서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문목사 : 제 나름대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만,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반을 사준다든지, 포스터를 구해주며 그들만의 취미생활을 존중하고 허용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살아가면서 용서와 긍휼이 가장 좋은 교육방법임을 체득하게 되더군요. 특별히 아내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도 저를 돕는 자로 남아 가정을 섬기는 모습에 깊이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고3 된 딸과 함께 늘 제 설교에 대해 충실하고 예리한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정집사 : 청소년 시절 그들의 영혼에 뿌려진 말씀은 10년, 20년, 30년 후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를 위한 사역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목사 :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심어가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사역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예배 프로그램, 예배음악, 목회자 선정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과 제도장치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 재미있는 교회, 유익하다고 여기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을 교회로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개발,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축구클럽, 농구클럽 조성 및 청소년밴드, 댄싱클럽 등의 그들만의 문화공간을 넉넉히 제공해 주는 일 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집사 : 우리 사회가 집단 이기주의나 물질 만능에 빠져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소홀한 감이 많은데, 우리 주님의교회만이라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는 일에 앞장선다면 차세대 영혼구원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작은 몫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류에 영합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그냥 합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의 흰머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고충들이 교회에 산재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문목사: 청소년들이 우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로는 청년들이 600명 이상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150여명에 불과합니다. 너무 그동안 방치한 기분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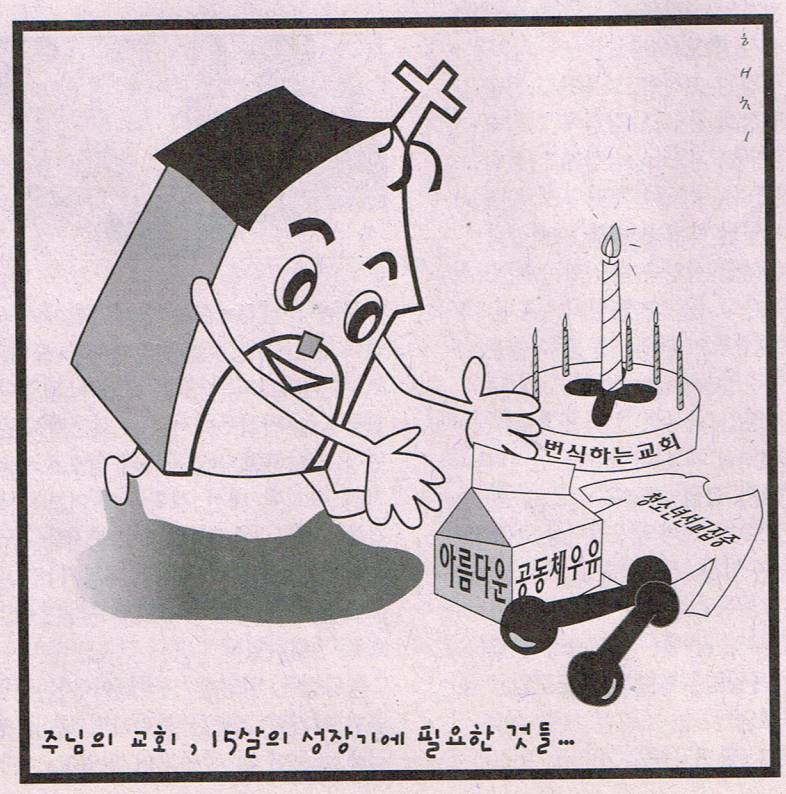
정집사 : 다음으로 '번식하는 교회'로서 제2, 제3의 주님의교회를 어떻게 번식시키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목사 : 주님의교회의 정체성과 같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신 교회 설립정신과 더불어 살며 나누려는 의지를 가지고 믿는 자들의 그룹이 형성되는 곳에 목회자 파송, 경제적 지원을 하여 제2, 제3의 주님의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교회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재정과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교회 비전을 나누는 제2, 제3의 많은 '주님의교회'들과 한마당 축제를 벌일 날들을 꿈꿔 봅니다. 잠실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축제의 잔치를 말입니다.

정집사 : 부디 제2, 제3의 주님의교회들을 많이 번식하여 무지개 빛 비전을 실천하시는 목사님으로, 앞으로 10년간을 교우들과 함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는 멋진 마라토너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자들 : 목사님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 : 정해춘 기자 기록 : 현순자, 신지민 기자



실버콰이어 부라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잠 16:31)이라고 솔로몬 왕도 그 인생의 가치를 긍정했다. 우리 교회 '실버콰이어'도 이제는 합창단으로서의 활동이 많이 넓어졌다. 지난 무지개 축제에서도 2곡을 발표해 많은 칭송을 들었고, 지금도 열심히 그 레퍼토리를 확장해가고 있다.

매월 첫째와 셋째 주일 오후 1시에 단원 65명이 5층 찬양연습실에서 김주봉 집사의 지휘와 김연경 자매의 반주로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다.

비록 음악적으로 비전문가이고 기력과 시력 등이 쇠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그리고 향후 발전을 위해 교회의 적극적인 돌봄과 대장 엄주청 안수집사의 노고와 총무 신정웅 집사 그리고 김주봉 집사의 헌신 봉사는 실버콰이어의 앞날을 밝게 한다.

단원 모두는 노년이 되어가도 무엇인가 하나님 사역에 일조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서인지 합창단원으로서의 각오와 사명감이 투철하다.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5층 연습실로 가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

김도묵, 홍근용 퇴임장로와의 일문일답

새신자, 선교, 구제에 집중하는 교회되길

지난 15년을 회고하면서 두 분께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잊을 수 없는 일이 참 많지만, 한남동 지하실(청여원)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던 일, 이재철 목사님이 떠나실 때 전 교인이 학교 정문 앞까지 도열해서 환송했던 일과 본당 건물의 준공감사예배를 드린 일입니다.

이어지기를 바라는 좋은 전통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는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또 헌금의 반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쓰기로 한 것은 창립 전야에 드린 예배에서 전 교인이 서원한 것이기에 꼭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 무기명으로 헌금드리는 일과 교인이 교역자에게 물질로 사례하지 않는 일 등이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되지요. 15년, 20년 전의 것이 오늘의 세대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같은 감동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지요. 또 어떤 제도나 전통도 오래되면 경직되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몇 사람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15년 만에 삼천 명이 넘는 큰 성장을 하게 된 가장 큰 동인이라면?

먼저 이재철 목사님과 임영수 목사님 두 분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립 이후에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지요. 그 분들의 헌신적인 사역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를 참신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동참하셨기 때문이지요. 내가 낸 헌금이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또한 큰 역할을 한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적 성장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보다 빠르게 성장한 교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향하는 바가 양적 성장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되는 현실입니다. 최근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를 가졌다가 그 종교를 떠난 인구 중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불교, 천주교의 순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교회를 떠나게 했는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다시 불러 들이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은?

당회원들에게는 지금까지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어 왔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굳이 말하라면 그 동안 대부분의 교우들이 당회의 결정에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몇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당회가 결정해야 하는 일들 중 많은 것들이 가부간에 장, 단점을 지닌 선택의 문제이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결정이 될까를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결정한다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도 100%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지요. 단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어도 장점이나 편리함이 더 크면 그 쪽으로 결정해야지 비난이 두려워 미루거나 기피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면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교인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앞으로 주님의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다른 부탁할 말씀은?

문동학 목사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잘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하지만 새신자를 많이 만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한 Project를 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여기 저기 조금씩 보내놓고 회의(懷疑)하는 것보다는 금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Project, 예를 들자면 전과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사업이나 꼭 필요한 곳(국내외를 막론하고)에 병원이나 학교 혹은 양로원, 고아원을 지어 운영하는 일, 청소년 전도를 위한 특별 플랜 등이 있겠지요.

• 김도묵 장로 프로필
1939. 5. 경상북도 봉화에서 출생
1945~1955 봉화교회 출석
1955~1988 노량진교회, 송학대교회, 한강교회, 소망교회 출석
1988. 현재 주님의교회 출석

• 홍근용 장로 프로필
1941. 10. 부산시 초읍동에서 출생
1941~1960 초읍교회 출석
1960~1988 한빛교회, 소망교회 출석
1988. 현재 주님의교회 출석

유아 1, 2부 반별찬양율동대회

찬양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유아 1, 2부 반별찬양율동대회가 6월 8일(주일) 정신여고 교정에서 열렸다. 유아 1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유아 2부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4살반과 5살반이 한 팀이 되어 총 14팀 90명의 아이들이 출전하였다.

화창한 늦은 봄날 귀여운 의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잔디밭에서 초록나무를 무대삼아 찬양을 부르며 율동을 하였다. 열심히 동작을 따라하는 어린이도, 수줍어서 가만히 있는 어린이도 잔디밭 위에서는 새싹처럼 빛이 났다. 이 대회는 아이들에게 찬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렸으며 약 한 달 가량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대회시상식은 6월 15일(주일)에 있었다. 유아 1부는 9시 30분 예배시 유아부실에서, 유아 2부는 11시 30분 예배시 유아부실에서 시상했다. 심사위원은 유아 1부에 이희숙 권사, 신관수 권사, 이은정 총무 그리고 유아 2부에서는 김원경 권사, 박순실 권사, 이은경 총무이었으며, 심사기준은 각 팀별 아이들의 인원수와 찬양율동과 반별 소품준비 상태를 보고 평가했다.

좋은책읽기모임 그 18번째 이야기

헨리나우웬의「영적 발돋움」을 읽고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 새로 단장된 도서실에서 제18회 월례 독서토론모임을 가졌다. 이번 토론 도서는 헨리나우웬의 「영적 발돋움」이었다. 책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영적인 삶이란 첫째로 우리의 가장 깊숙한 '자아'로 발돋움하기, 둘째로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 따뜻한 환대로 발돋움하기, 셋째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하기이다.

회원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영적인 삶과 삶의 현장에서의 체험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다가오는 외로움, 두려움, 허무감 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통들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를 향한 내면의 질문으로서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명상과 묵상의 일부로 삼게 하며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기울이며 하루에 5분씩이라도 골방에서 침묵의 기도를 시작하자는 회원도 있었고,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여 분주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의 고독을 통하여 나의 참 자아를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자는 회원도 있었다.

자기의 내면을 잘 정리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의견을 모으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께로 향해 정진하자는 결론으로 모임을 정리하였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체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19회 독서모임에서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다루기로 하였다.

호렙산악회

산상기도회 가져

지난 5월 17일 주님의교회 호렙산악회(대장 : 임헌표 안수집사)는 충남 예산군 덕산에 있는 덕숭산(495m)에 올라 산상기도회를 가졌다. 김경덕 안수집사의 세밀한 계획과 안내로 42명은 덕숭산의 싱그러운 신록을 맛볼 수 있었다. 버스는 아침 7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9시에 덕숭산 입구에 도착하였고, 이어서 수덕사를 옆으로 끼고 한 시간 가량 등반하니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정상에서 성도들이 찬송 377장 '예수 따라가며'를 찬양하였고 임헌표 대장의 기도가 이어졌는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심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였다. 이상훈 목사는 출애굽기 3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주제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은 세상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 건설을 위한 은사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고 섬겨야 된다."

11시가 넘어 하산하여 주차장 가까이에 있는 중앙식당에서 산채정식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천수만 AB 방조제와 간월도를 둘러보았다. 조선연 총무를 비롯한 호렙산악회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 날 하루에 5월의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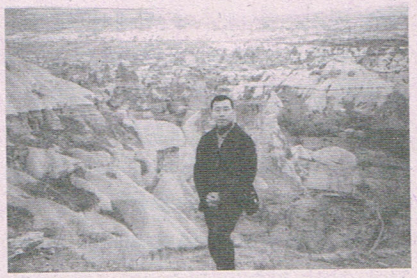
성지순례시리즈 7

기독교 역사박물관, 갑바도기아

이른 아침 시작된 순례에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풍광이 펼쳐졌다.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갑바도기아(괴뢰메 지역과 젤베 계곡)의 경관은 정말 신비롭기 그지없었다. 터키 학자의 설명이 귀에 들어온다. 수만 년 전, 에르지에르산과 길류산의 화산 활동으로 용암과 화산재가 이 지역을 1,200미터나 덮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원래의 사암 위에 용암이 쌓여 응회암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단단한 용암은 남고 연약한 사암 부분이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지금의 아주 기이하고 독특한 지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풍광에 취하다가 수많은 암굴과 토굴에 눈이 간다.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로마제국 시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소아시아 반도를 비롯해 각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이 곳에 몰려들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 한때 200만명에 달했던 그들은 암굴과 토굴을 파고 살면서 오늘의 역사적인 현장을 만들었다. 계곡을 타고 내려오며 한 암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조용히 빛이 스며드는 밖을 응시하면서 자문했다. 설 수도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이 곳에 살던 사람들이 지키려했던 기독교 신앙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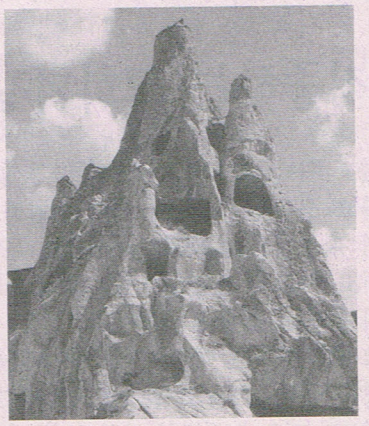
계곡을 내려오자 이 곳의 역사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기독교가 공인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떠났고 기독교는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4세기경 이 곳의



교회감독이었던 바질은 이러한 세태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이집트 동부 사막지대의 성안토니오 수도원을 방문하고 큰 감명을 받았던 그는 괴뢰메 지역의 수도자들을 모아서 수도원 지대를 만들었다.

그 이후 진기한 형태의 돌기둥 꼭대기나 까마득한 암벽 중간에 작은 동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 외롭게 구도의 길에 정진한 수많은 주상성자(柱上聖者)들이 생겨났다. 또한 출중한 신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이른바 '갑바도기아 학파'들은 기독교 정통 교리와 신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기독교 성장의 본질은 무엇이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과 위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원시적 공동체 유적을 지나고 나니 입장료를 내는 곳에 도달했다. 제법 제도적 교회의 형태를 갖춘 지역이었다. 바실교회, 사과교회, 바르바르교회, 허리띠 교회, 뱀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그려진 성화들이 눈에 띠었다. 그 그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 기간에 베푼 기적들, 최후의 만찬과 유다의 배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예술에 분야



에 조예가 깊은 터키 학자는 이 그림들이 당시 비잔틴 예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그림들이 회교도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아쉬워했다.

교회사에 밝은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기독교 자체 내에 성화파들과 성화를 반대하는 세력(이크노클라스파) 간의 종파싸움을 계기로 성화파들이 박해를 피해 이 곳에 숨어들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곳의 교회들은 초기 공동체 유적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마음이 어두워진다.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지하도시 데린쿠유로 가면서 한 목사님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관한 자료를 건네 주신다.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눈이 멈추었다.

이 곳은 기독교의 근원적인 모습들, 기독교 성장에서 오는 모순들, 기독교와 타종교간의 마찰, 그리고 기독교 자체 내의 종파싸움으로 인한 쇠퇴기와 멸망의 원인들을 잘 설명해 주는 살아있는 기독교박물관이다.

눈을 감으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의 신앙과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 하화주 집사

의료선교부 무료건강검진

7시간동안 130명 교우들이 검진을 받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주님의교회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6월 22일 의료선교부(부장:최상용 안수집사)가 계획하고 추진한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은 오전 8시 30분부터 7시간의 마라톤 봉사로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처음 70여명 정도의 검진을 계획하였으나 5,60대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려 배에 이르는 130여명의 교인들이 참여하였다. 지하 대화의 방에서 접수와 설문조사 및 혈액채취를 하였고, 5층 의무실에서 최신 검사장비로 심음(心音), 혈관맥파, 심전도, 사지혈압을 측정하여 동맥경화 정도와 비만을 체크하였다.

너무 많은 교인들의 참여로 장사진을 이루어 의료선교부원들은 점심도 거른채 비지땀을 흘렸다. 특히 최상용 안수집사는 자기가 근무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고가의 최신 의료장비를 빌려와 우리 교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박호길 장로, 박혁동 집사, 김광일 집사, 양이신 집사, 최성화 권사, 강은애 권사, 서은숙 권사, 지형민 군 등 모두가 눈코뜰새 없이 동분서주하였다. 검진결과는 혈액검사만 빼고 다 즉시 나왔으며, 모두들 최상용 안수집사에게 자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의료선교부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교인들의 격려와 기도와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 주(29일) 안으로 나올 것이며, 또한 최상용 안수집사를 비롯한 의료선교부의 친절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 정해춘 기자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일정

- 영아부 : 7월 13일(주일) / 교회
- 유아부 : 7월 12일(토)~13일(주일) 교회
- 유치부 : 7월 12일(토)~13일(주일) 교회
- 유년부 : 7월 27일(주일)~29일(화) 안성엄마목장(너리골문화마을)
- 초등부 : 7월 24일(목)~26일(토) 양평 관광농원
- 소년부 : 7월 24일(목)~26일(토) 가평 용두암수련원
- 중등부 : 7월 27일(주일)~29일(화) 강원도 산골아이놀이학교
- 고등부 : 7월 29일(화)~8월 1일(금) 강원도 산골아이놀이학교

여름수련회는 교회학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앙공동체 훈련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문의 : 김현령 전도사).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성가대는 '찬양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담한 찬양대를 최근에 '성가대'로 많이 칭하고 있다. 이 말은 출판사들이 흑인영가와 복음송을 합하여 출판하면서 '성가곡집'이라 부르는데서 보편화되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찬양대라는 이름이 통용되었고 성가대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세이카다이 - 성가대(聖歌隊)'가 그대로 직수입되면서 성경에도 없는 '성가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가라는 말은 불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이며, 우리의 '찬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가대'라는 용어는 성경의 정신과 우리의 고유한 이름인 '찬양대'로 바꾸어 부름이 타당하다.

(교회용어연구회 제공자료)

교구소식

▶8교구 여름수련회

8교구 여름수련회가 7월 27일(주일) 오후 3시부터 7월 28일(월) 오전 10시까지 양평한화콘도 근처에 있는 양평관광농원에서 있다. 남녀노소의 구분없이 8교구 모든 구역들을 환영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구역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문의:각 구역장과 권찰 또는 김병모 목사, 한득현 안수집사, 임기택 집사, 김진숙 집사)

▶8-3구역 구역모임 종강파티

8-3 구역모임 종강파티를 7월 6일(주일) 남한산성 산행 후 장군갈비에서 갖는다. 오후 3시까지 남한산성 입구 812번 버스종점으로 모이면 된다. 평소 바빠서 구역모임에 자주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라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김화자 집사에게 필히 연락을 바란다(019-320-6544). 참가 회비는 어른은 만 원, 어린이는 오천 원이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 기사제보안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기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핸드폰 : 011-466-4736
▶이메일 : chhylee@korea.com